



사도행전 16:19-32

- 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 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 하게 하여
-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기고 매로 치라 하여
-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

까 하거늘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요약

많은 사람이 노력하지만, 세계복음화하려고 하면 그 위의 것을 해야 된다. 그냥 전도하지 말고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25:00 능력이 없기 때문에 24 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라는 25가 보이기 시작했다. 말씀이 나하고 딱 맞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원이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
성삼위-영, 보좌, 천사, 흑암x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영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문을 여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을 결박시키신다.
오는 단계(제자) 경쟁해야 되는 것은 불신자와 같은 상태다. 정복하는 단계는 능력 있고 성공했을 때의 얘기다. 그런데 응답이 되어서 몰려오는 단계가 있다. 이걸 전도 제자라고 한다.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은 응답이 온다.

- ▣ 서론_ 언제 절대 망대가 서게 되는가? **시험, 갈등, 위기** 때
- 1. **빌립보 감옥** - 귀신 들린 여종 고쳤는데 감옥에 갇혔다. 거기서 절대 망대가 서게 된 것이다.
- 2. **7시대** - 어려운 시기, 낙심해야 될 시간표에 역사 일어났다.
- 3. **초대교회** - 복음 전하면 잡아가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이때 다 세워졌다.
- ▷ 진짜 전도 현장 가면 경쟁자 없다. 누구든지 안 가려고 하는 곳이라 너무 쉽다.
- ▣ 본론_ 무엇을 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가?
- 1. **제자의 절대 망대** 세울 때 보좌의 능력 임하고 싸우지 않고 이긴다.
 - 1) 루디아를 만났다. 작은 여자 한 명이 진짜 복음을 도왔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 2)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이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 3) 실라가 감옥까지 따라갔다.
-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 -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자의 길에 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 ▷ 여러분에게 제자의 망대가 서는 날, 세 가지(서론 전 네모)가 온다.
- 2. **치유의 절대 망대** 세울 때
 - 1) **행 13:5-12** 무속인을 흑암 세력에서 건져냈다.
 - 2) **행 16:16-18** 귀신 들려 점술 하는 여자를 해방시켰다.
 - 3) **행 19:8-20** 두란노에서 병든 자, 불치병 자를 치유했다.
- 의사 누가** - **아무도 못 고치는 병**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 감격했다.
- ▷ 병든 자를 초대해서 치유 집회를 해보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해보라.
- 3. **영원한 망대** 세울 때 -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 ▷ 세상 것으로는 세계복음화 못 하고 영적 문제 해결 못 한다.
 - 1) **행 9:15 7:7-7**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여기서 망대, 여정, 이정표 다 나왔다.
 - 2) **세팅** - 바울은 항상 회당, 치유 현장,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하여 기도처를 갔다. 이걸 보고 3집중, 3응답, 3세팅이라고 한다. 아주 중요한 것을 세팅한

것이다.

3) 서신 기록 - 편집, 설계, 디자인

▷ 부모와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다. 의미 있는 축복을 해보라.

▣ 결론_ 어떻게 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가? **미래 망대**를 세울 때

1. **오늘의 감사 빌 1:3-4**

이것 하기 위해서 오늘의 감사. 감사 없으면 치유 안 된다.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2. **미래의 확신 빌 3:1-21, 4:13**

미래에 대해 확신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일 많이 했는데 한 것 없다고 했다. “위에 있는 상을 위하여”라고 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3. **영원한 것을 주실 것이다(롬 16:25-27).**

▷ 이 축복이 와 있음을 믿고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권세가 있다.

녹취

감사합니다. 오늘은 2천 지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하려고 하면 그 위에 것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많은 성공도, 경험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응답받는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지역의 절대 망대**」(행 16:19-32)

그냥 전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역에다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지요.

제가 보기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굉장한 답이 되더라고요. 어렵지 않고. 내가 이제 유년 주일학교를 맡았다고 할 때는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것은 문제 될 게 없지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 전부 이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24]

24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할 수가 없잖아요. 중고등부를 맡기니까 내가 중고등부 뭐 할 게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24는 뭐냐? 매일같이 찾아가서 만나서 아이들 확인하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25]

이러다 보니까 이게(25)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이게 실제로 보였어요. ‘아,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었기 때문에 오직 24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나까 다른 데 어지간한 데는 안 갔어요. 그냥 이거(24). 내가 늘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친척들하고 우리 처갓집, 감사해요. 그 한 번도 안 갔거든요. 핑계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심지어는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못 갔단니까요. 집회하고 연결되니까. 집회 없어도 옛날에 현장에 들어가 24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이 예수도 안 믿는데 본래 사람들이 좋은 집안이에요, 보니까요. 증거 볼 거니까. 지금 싹 다 믿어요. 그러니까 25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다음에는 성경에 있는 게, 전에는 나는 성경책 별로 보지도 않았어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성경 말씀 자체히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나하고 맞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요.

[00]

영원이라는 답이 나오지요.

[성삼위-영]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된 거 있지요. ‘아,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면 가짜요. ‘안 보이게 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보좌-천사, 흑암 X]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영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낸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면서 이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걸 보게 됐어요. 진짜 상상 못하게 저는 응답 많이 봤거든요.

[오는 단계 (제자)]

이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경쟁을 해서 하는 단계가 있습

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불신자와 같은 상태지요. 근데 내가 정복하는 단계가 있단니까요. 그거는 능력 있고 성공했을 때 얘기겠지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요. 너무 미안하게도 몰려오는 단계가 있어요. 응답이 되어서 오는 단계. 이걸 보고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 램넛트는 이 축복(서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운동을, 언약 붙잡고 진짜로 응답받는 시작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요? 이 증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서두) 기도할 때 많은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 **서론_언제**

[시험, 갈등, 위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절대 망대가 서게 돼 있습니다. 주로 언제 서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주로 어떤 때 서는가 하나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시험들 부분이고, 굉장하 갈등이고, 위기 같은 이런 때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 오늘 보세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쳤으면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이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고발을 했는가 하나까 “이 사람은 우리 로마 사람이 따르지 못하는 풍속을 증거한다.” 이 점쟁이를 이용해 가지고 상업을 하는 사람이 짜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실라하고 같이 잡혀 들어간 겁니다. 고맙다고 해야 될 건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고쳤는데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걸려들어 가서 법에 정해진 대로 매를 맞고, 죄수니까 죄인이 된 거요. 웃도 어지간한 건 벗겨 버리고. 오늘 읽어 보니까 차꼬를 채웠다 이랬어요. 쉽게 말하면 쇠뿔치로 된 거를 발에다가 채운 거예요. 이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날 밤이었습시다. 바울과 실라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날 밤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서두) 아는 사람이지요. 이 세 가지(서두)는 굉장히 중요해요. 깊은 기도와 찬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응답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밥 먹는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내보내면서 “애, 겨우 겨우 굶어 죽지 말고 잘 살아라.” 이거는 아주 옛날에 무식할 때 하던 얘기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를 움직일 응답을 가지고 나가라.”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지역은 지진이 잘 안 나는 데라고 갑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집터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간수가, 지키는 사람이 죄수들 도망가면 큰일 나요, 자기는. 도망가려고 했을 때 이 간수들이 보고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칼을 가지고. 그때 바울이 그들을 부르며 말리면서 이야기를 한 거요. 이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이 간수가 앞으로서 앞으로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그때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급한 상황에 어려운 사람이 질문하면 답 주면 돼요. 그래서 용서를 빌고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오.

그때 바울이, 참 재미난 사람이지요. 그때에 로마 시민권을 보여준 거요. “당신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옥에 가두고 때릴 수 있나?” 여러분 같으면 처음부터 보여줬겠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소장이 바울 불러 빌고 잔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요.

1. 빌립보 감옥

빌립보 감옥에서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지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2. 7시대

렘넌트 7시대를 보면 너무 어려운 시기였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보통 사람은 낙심해야 될 시간표요. 이때 다 역사했거든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시험 들어 교회 떠나고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런 상황이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짜 절대 망대는 그때에 다 세워진 거요. 성경에 보세요. 한 군데도 빠짐없어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다. 7시대에.

3. 초대교회

이(7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초대교회였단니까요. 이거는 말이지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전하면 잡아가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이때 다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렘넌트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사실 성공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도망가고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진짜 전도 현장 가면 경쟁자 없어요. 진짜 전도 현장 간다?

신천지 없어요. 못 옵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진짜 기도 응답받으면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경쟁 안 해도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서 아무도 안 온단니까요. 다 도망가 버리는데 뭐. 경쟁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데 다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간 걸음, 렘넌트 첫째 보면 그거는 그 누구든지 안 가려고 하는 데 인테 거기 다 있단니까. 언제?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 본문_무엇?

그러면 무엇할 때 이렇게 절대 망대 서느냐? 하나님 역사 언제 이렇게 일어나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 많이 안 해도 돼요. 아주 중요한 걸 하셔야 돼요. 뭘니까?

1. 제자의 절대 망대

제자의 절대 망대를 세울 때. 이때에 이런(서두 네모)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때에 정말 보좌의 능력 임하는 응답이 오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응답이 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2. 치유의 절대 망대

치유의 절대 망대 세울 때. 자 전도하는 여러분, 제자의 망대 세우는 거는 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지만은 이(치유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 부분은 할 수 있어요. 지역마다 해보시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날짜를 정해 놓고 정말 병든 자를 초청해서 집회 한번 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병든 자를 모셔다가 한번 치유 집회를 해보라니까요. 옛날에 막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때 절대 망대에서 이런(서두 네모)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3. 영원한 망대

세 번째 거입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울 때요, 이런(서두 네모) 일이 벌어져요. 자 이 세 개는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1. 제자의 절대 망대

바울이 전도 문이 막힌 거로 알았거든요. 막힌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잖아요.

1) 루디아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또 루디아는 ‘내가 큰 인물이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작은 여자 한 명이 진짜 복음을 도왔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이래 가지고 별

어진 게 뭐냐?

2) 귀신 들린 자

이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고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3) 실라

그리고 이 감옥소 갔는데 누가 따라갔지요? ‘실라’라는 인물이 같이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자의 망대가 서는 날, 그 시간에는 반드시 위에 있는(서두 네모)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는 여러분의 현장에는 이(서두 네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시간초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약속을 강하게 하셨는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안 믿어요.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너무 뭐 추상적이다.” 그렇지요. “아이고 뭐 허상이다.” 허상이지 뭐. 어디 눈에 보입니까? 밖에 나가서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는 그게 실상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 전혀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여러분이 막 고민할 때, 화낼 때 영의 세계 어떻게 된다는 거 전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제자가 서는 날 이런(서두 네모) 일이 벌어지고

2. 치유의 절대 망대

1) 행 13:5-12

앞에 또 보세요. 그 무속인을 흑암 세력에서 건져내는 거요.

2) 행 16:16-18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려 점술 하는 여자를 해방시키는 일

3) 행 19:8-20

다음에 나오겠지요. 두란노에서요 병든 자, 불치병 자를 치유한 겁니다.

의사 누가

자 중요한 거는 사람이 그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가 보다.’ 이거 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사도행전) 누가 썼는가 하니까 의사 누가 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의사가 볼 때 ‘이거는 도대체 우리는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이걸 본 겁니다. ‘이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걸 일반 사람이 얘기하면 잘 안 믿는단 말이오. 그래서 내가 우리 김신태 장로님보고 “치유 사역할 때, 호흡 치유할 때, 의사분들을 많이, 또 이렇게 활용을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요. 왜냐하면 의사분들 그 전문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의사 누가가 말이오 성공한 의사라. 이 사람이 성공하고 난 뒤에 이게 전도만 따라붙을 만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테오빌로라고 하는 총독, 그 사람이 법관이었다 말이지. 이 사람에 대한 주치의 역할 하다가 은퇴를 한 거지요. 이 어마어마한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겁니다. 이런(서두 네모)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보기에 ‘이야~ 이게 도대체…….’ 어떤 답이 나오니까?

[아무도 못 고치는 병]

이런(아무도 못 고치는 병) 답이 나온 거예요. 감격을 한 겁니다. ‘이야~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

앞에(본론 1) 여기는 뭘니까? 우리가 제자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제자의 길에(제자의 절대 망대) 섰다 그랬어요. 꼭 이렇게 될 겁니다.

가능하면은 하루에 한 번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세요. 가능하면. 뭐 매일 하기 힘들면 날짜나 예배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든지요. 중요합니다.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네가 가는 길에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서 제자의 삶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네가 가는 곳에 참된 치유운동 일어나길 바란다.” 이거는 뭘니까?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3. 영원한 망대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드디어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못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세계복음화 못 하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 보세요.

1) 행 9:15, 7·7·7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미 뭐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자신과 후대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여기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서 이미 다 나온 거라니까.

2) 세팅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바울이 아주 중요한 현장 간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바울이 간 데는 정확하게 말하면 세 군데예요. 어딤니까? 회당. 그리간 거잖아요. 거기는 아이들 있으니까. 또 어디 갔습니까? 여기(본론 2) 갔잖아요. 치유 사역하러. 그다음에 간 데가 있어요. 항상 바울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하여.”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3집중, 3응답, 3세팅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를 딱 세팅을 했지요. 이 영원한 망대입니다.

3) 서신

자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어요. 이게 뭘니까? 이걸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 바울이 보낸 서신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굉장한 역사, 이게 영원한 망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은 영원한 망대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금토일 시대 열여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 오면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은요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신명기 21장 5절에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축복권, 판결권, 예배권을 줬어요. 그 말은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단 말이 아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응답을 주었다 그 말이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토일 열 때 그 한번 멋있게 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진짜 의미 있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안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제발 잡고 기도한 거예요. 거의 내가 모르지요. 어떨 때는 내가 알 때가 있잖아요. 발 잡고 기도해요. “위대한 주의 종이 되게 해 달라.” ‘교회도 안 가는데 뭘 소리하냐.’ 그걸 성취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 결론_어떻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전체 메시지) 일이 일어날까요? 서론에는 언제? 이거요.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할 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할 때 일어납니까?

[미래 망대]

여러분이 미래 망대를 세울 때. 지금 하는 거는 미래 망대를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1. 오늘의 감사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늘의 감사입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쓴 거예요. 오늘의 감사. 여러분 감사 없으면 치유 안 됩니다. 감사.

빌 1:3-4

어느 정도 감사했다면은 하나만 기억해야 될 거는 빌립보 1장 3절 4절에 “항상 감사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오늘의 감사지요.

2. 미래의 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중에 특히 보세요.

빌 3:1-21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엄청 일 많이 했는데 아주 한 거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 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위에 있는 상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빌 4:13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언약 잡으시고요.

3. 영원한 것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주실 겁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음을 믿어야 되고요,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권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237 선교회에서 기억해야 될 건요 전 세계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실은 돈 얼마 안 들어요. 독일에 장로님들이 제 메시지를 듣고 RUTC를 찾았는데 놀랬다 안 합니까. 너무 좋은 동네인데, 우리 가 봤어요. 너무 위치 좋고, 건물 좋아. 너무 싼 거요. 왜냐 했더니 가격이 딱 거보다 1/3 이런데, 왜냐 했더니 “문화에만 써라.” 이런 건물도 있어요. 선진국 이니까. “여기는 문화 사역만 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실제 어떤 교단에는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교회당 좀 예배당으로 써달라.” 이런 데도 있어요. 우리 선교팀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237 쪽에 목사님들은 거의 조금 과한 말로 절반 이상이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목사 돼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필요합니다. 간단한 말로 절대 망대를

세워 세상 이길 준비를 하시라. 이 언약이 여러분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으로 세상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주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권세로 세계복음화하게 해 주옵소서. 의사 누가가 본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지식인 바울이 본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감격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